

(2021.10.11.월) 인공지능, 산업현장 적용 왜 어려울까?(한겨레)

2016년 3월에 개최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인공지능(AI) 연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대국 전에 대부분의 참관인들은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길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5차례의 대국에서 알파고는 이세돌을 4 대 1로 이겼다.

그 뒤 딥러닝과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의 부흥을 이끌었고, 수조원의 투자로 이어졌다.

올해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가트너(Gartner)와 벤처비트(VentureBeat)의 보고서를 보면, 80% 이상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한다.

연구단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산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따른다는 이야기다.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학습 데이터의 부족이다.

여러 인공지능 학습 방법 중 지도학습이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다.

지도학습의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쌍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의 양이 인공지능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 구축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의료 영상 이미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의사가 많은 양의 의료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여 진단(레이블)을 작성해야 한다.

그 비용과 노력은 만만치 않다.

그렇기에 레이블을 최대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도구가 필수적이다.

많은 스타트업이 레이블 작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둘째는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다.

학습 데이터의 품질 또한 인공지능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의료 영상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의사가 진단을 작성했다고 하자.

만약 의사마다 진단 기준이 다르다면 학습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인공지능의 성능이 나빠질 것이다.

사실 한명이 레이블을 작성하더라도 매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학습된 인공지능의 출력 결과와 레이블이 다른 데이터를 재점검하는 것이다.

셋째는 산업 현장 데이터의 변화이다.

데이터의 변화 원인은 다양하다.

앞의 예시인 의료 영상 이미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대상 데이터 자체의 변화가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병이 생긴다면 인공지능은 엉뚱한 진단을 내릴 것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생성 환경의 변화가 있다.

의료 영상 이미지를 촬영하는 장비의 변경은 의료 영상 이미지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를 감지하고 데이터 추가 구성, 환경 조정 등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기업의 연구자들이 슈퍼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알고리즘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더욱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알고리즘의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중심엔 데이터가 있다.

도메인 지식과 현장의 데이터가 중심이 된 적용 성공 사례가 많아질 때, 기술과 시장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 인공지능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질문 1 : 「회색 코뿔소」는 어떤 취지로 표현된 단어이며, 어떤 심각성을 비유할 때 자주 쓰일까요? (2021.10.12. 화요일 사설 참조)

답 1 : (취지) :

()의 심각성을 비유하는 표현

(2021.10.12.화)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동아일보)



누구나 위험 요소라는 것은 알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다가 훗날 위기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비유해서 '회색 코뿔소' 라고 표현한다.

①거꾸이지만 몸놀림이 날렵하고 날카로운 뿔까지 가진 회색 코뿔소가 위험한 동물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가갔다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취지다.

예상하기 어려운 위기를 빚던 '블랙 스완(검은 백조)' 과 대비해서 쓰이기도 한다.

회색 코뿔소는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셸 부커가 처음 사용한 이후 중국 ㉠국가·기업 부채(빚) 등 문제의 심각성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였다.

중국 정부도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8일 "각종 블랙 스완과 회색 코뿔소 사건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당에 주문했다.

미·중 갈등, 확대된 유동성(기업의 자산 등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대응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년 전에도 경제성장을 저하 등을 경계하며 블랙 스완과 회색 코뿔소를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블랙 스완이었을까, 회색 코뿔소였을까.

코로나19라는 특정 바이러스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언젠가는 강력한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돼 왔기 때문에 회색 코뿔소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도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여러 국가가 미온적(태도가 미적지근한 것)으로 대응하다 피해를 키웠다.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은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위험 요소를 무시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준 것" (영국 이코노미스트)이라는 지적은 따끔하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앞서 신종플루와 메르스 당시 겪었던 감염병 대응 인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까지 마련했지만 코로나19가 퍼지자 같은 문제가 재연(한 번 했던 행위를 다시 되풀이 함)됐다.

교정시설은 코로나19 확산의 최적 조건을 가리키는 3밀(밀집·밀접·밀폐)의 대표적 장소로 꼽히지만,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수용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종교시설에서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신천지교회, 사랑제일교회, IM선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감염병은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댐처럼 약한 고리가 남아 있으면 언제든 확산될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방역 모범국이다가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의 감염을 막지 못해 순식간에 코로나가 창궐했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시간을 앞당기려면 우리 주변에 또 다른 회색 코뿔소는 없는지부터 살펴봐야겠다.

(2021.10.13.수) 어린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가 미생물 때문?(동아일보)



[콜리플라워(흰색)]



[브로콜리(초록색)]

어린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연구팀은 최근 어린이의 입 속 미생물과 채소의 화합물(2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이 만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미국 국제학술지인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브로콜리와 유사한 형태의 꽃양배추) 등의 채소에 들어 있는 화합물인 '다이메틸트라이설파이드'는 채소를 맛없다고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다.

이 화합물이 입 속의 특정 미생물과 만나면 썩은 냄새나 유황(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노란 빛의 광물) 냄새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팀은 6~8세 어린이들과 부모로 구성된 98쌍, 총 196명의 참가자로부터 타액(침) 표본을 채취하고, 이를 콜리플라워 분말과 혼합해 발생하는 화합물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실험 참가자들의 타액과 콜리플라워 분말을 혼합했을 때 생성되는 다이메틸트라이설파이드의 양에는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입 속 미생물 수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했다.

침 속에 미생물이 많은 어린이일수록 채소를 먹었을 때 불쾌한 냄새를 더 예민하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이때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침 속 미생물의 수는 부모에 따라 유전적으로 다르게 타고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와 달리 부모는 침 속에 미생물이 많아도 채소를 싫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채소의 맛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를 주도한 데미안 프랭크 박사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며 “이번 연구는 사람마다 채소의 맛을 다르게 느끼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1.10.14.목) 살인까지 일으키는 '유독한 관계' 식별하는 법(조선일보)

흉악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범죄 대부분은 남녀 관계에서 촉발된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산다고 했다가 나중엔 못 살고 죽이기까지 한다.

이런 남녀 사이는 '유독한 관계' 에서 움트기 시작한다.

빠져있을 때는 사랑인 줄 안다.

역사적 로맨스(romance : 낭만적인 사랑)로 착각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 니나 배선 박사는 상대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면 당장 관계를 정리해야 후환을 없앨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당신 외에 친구가 별로 없는 상대는 경계해야 한다.

필경 무슨 이유가 있다.

게다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왠지 피곤하게 느껴지는 건 마음은 아직 눈치 채지 못했지만 몸이 먼저 이상한 낌새를 찬 것이다.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배가 더부룩하고 머리가 아픈 건 내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증상이다.

술 새 없이 문자를 보내면서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다.

당신의 성격, 가치관, 외모를 폄하하고 욕을 해댄다.

학대를 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 징후다.

걸핏하면 말을 중간에 끊고 묵살한다.

수동적 공격 성향의 전형적 조짐이다.

왠지 모르게 항상 사과하게 한다.

죄책감이 들게 만들고 모든 원망을 뒤집어씌운다.

'살 빼라' '머리 염색해라' '다른 일을 찾아보라' 는 등 면박을 주고 종용을 하며 고장 난 물건 고치려 하듯 한다.

그러면서 옛 애인은 모두 '미친X' 들이었다며 거품을 문다.

모든 책임을 그 '미친X' 탓으로 돌린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거짓말한다.

너무 태연하고 반복적이어서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하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 이 된다.

결국 당신은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그걸 숨기고 변명해주다가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런 '유독한 관계' 를 식별할 방법이 있다고 배선 박사는 말한다.

"당신은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는데 당신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 미쳤니?" 하는 그 사람은 결국 당신 인생을 망칠 사람" 이라고 한다.

(2021.10.15.금) 땡전 한 푼과 인플레이션(어린이경제신문)



[당백전. '땡전'의 유래]

“땡전 한 푼 없다” 는 돈이 없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깊어요.

조선 말기, 흥선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의 상징물인 경복궁을 확장하고, 군사비를 늘리기로 했어요.

당연히 예산, 돈이 필요했는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화폐의 발행이었습니다.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1866년 11월부터 발행한 <당백전>입니다.

‘이 동전 하나가 기존 화폐인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조선이 5개월 동안 만들어낸 당백전은 1,600만 냥 어치나 됐습니다.

상품의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화폐가 갑자기 늘어나면?

당연히 물건값이 비싸지는(물가상승) 현상이 뒤를 잇지요.

당백전 발행 초기인 1866년 12월 말에 쌀 한 섬(2가마) 가격은 상평통보 7~8냥이었지만, 2년도 안 돼 6배까지 폭등했어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inflation :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현상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국민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화폐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졌죠.

조선에서 만든 돈은 신뢰와 가치를 잃어서 청나라 동전을 사용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국 당백전은 1868년 5월에 사용이 중단됐어요.

이 사건에서 나온 말이 ‘땡전’ 입니다.

백성들은 삶이 갑자기 힘들어진 이유가 ‘당백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어요.

‘당백전’ 을 줄여서 ‘당전’ 이라고 불렀고, 이를 거세게 발음해 ‘땡전’ 이 됐어요.

이게 나중에 ‘땡전’ 으로 바뀌었죠.

별 가치도 없는 땡전이지만, 그나마도 없으니 정말 돈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땡전에는 잘못된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기억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보너스 읽기1W 인도까지 번지는 에너지대란... 인플레 공포에 기름 붓는다(국민일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증가에 따른 병목 현상과 탄소중립 정책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 천연가스 공급부족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전력난을 야기한 석탄부족 사태가 '아시아 경제 3위' 국가 인도로까지 번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군병력까지 투입할 정도로 코로나19 봉쇄조치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야기된 외국인 트럭운전자 부족 때문에 주유대란을 겪고 있다.

영국내 주유소 10곳중 3곳의 재고가 바닥났다.

여기에도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7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럽지역에 풍력발전을 수출해 온 아일랜드의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잦아드는 바람에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를 부추기면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을 불러온 것이다.

천연가스 사태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수요는 늘고 생산이 줄면서 에너지 등 자원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또 국제원유가격까지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27일 브렌트유 가격이 40일만에 24%나 오르면서 3년만에 배럴당 80달러를 터치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 겨울 한파가 닥칠 경우 100달러를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4일(현지 시간) 생산량 증대 논의에 들어가는 OPE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주목된다. 문제는 코로나 병목현상 와중에 그린플레이션 속도와 범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무원이 올해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지난해보다 3% 줄이라고 하달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방침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역시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면서 불거졌다.

호주와의 외교갈등 등으로 인한 석탄 수입 중단도 원인이지만 수입 의존도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 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늘어난 상품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더 돌린 지방정부들이 연말까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전력 공급을 차단하면서 벌어졌다.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석탄수요 억제를 위해 탄광 조업일을 연 276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으며 연간 8억t 가량을 생산하는 노후 석탄광산폐쇄를 추진했다.

이에 수요(연간 42억t)가 생산량 목표량(39억t)을 초과하는 구조가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각 지방정부가 전기료를 석탄가격에 연동해 올리도록 하는 생산증대 계획을 발표했다.

또 연료탄, 천연가스 수입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규 석탄 생산 계획 등이 단기내 공급난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목표 달성에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시노링크 증권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까지 중국에 필요한 발전용 석탄 총 18.5억t 중 12~19% 해당하는 2.2억~3.4억t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제조업 생산에 영향을 주면서 제품 생산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정전사태로 이미 8월 50.10이었던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가 9월 49.6으로 떨어졌다.

모건스탠리는 정전 등의 영향으로 9~12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알루미늄과 시멘트 공급은 각각 7%,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포인트 가량 하향 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계 제조업 기지인 중국의 전력난으로 공장가동 중단이 길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우려된다.

노무라증권은 중국 공급망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대만·말레이시아·한국 등을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코 등 일부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이미 중단된 가운데 전력난 지속 시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 대부분이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지적했다.

이 와중에 석탄이 전력생산의 66%를 차지하는 인도로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135개 발전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주말 현재 석탄 재고가 3일치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전력공급 중단 위기로 치달고 있다.

인도 정부는 석탄 수입의존을 줄이는 대신 국내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감함에 따라 전력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 17%나 늘어난 반면 오히려 수해가 겹치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와중에 주 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t당 가격을 지난 3월 60달러에서 200달러로 3배 이상 인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석탄 등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타국과 마찰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석탄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근 중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사재기에 나선 것이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석유화공과 중국해양석유, 중국석유천연가스 등 국영에너지 회사들이 LNG의 겨울철 재고를 채우기 위해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LNG 현물가 LNG-AS는 100만 BTU(영국 열량단위)당 34.47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겨울철이 오기 전 에너지 가격 급등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침체)' 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문 2 : 이 글에서 글쓴이가 판단한 중국의 전력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답 2 : ()

- ① 호주와의 외교갈등 등에 따라 중국이 호주 석탄 수입을 중단해서
- ② 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지난해보다 3% 줄이려고 지방정부가 전력공급을 차단해서

₩보너스 읽기2W 알아두면 좋은 경제 상식 인플레이션과 종류(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상품의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경제 현상
-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며,
돈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차이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율이 0% 이하로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광범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태임에 비해
디플레이션은 광범한 초과 공급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종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demand-pull inflation)

총수요의 증가를 통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며,
비용상승(cost-push)인플레이션과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합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위한 비용의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이 제약받으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임금, 임대료 등이 인상될 때
기업이 증가된 생산비용을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나타납니다.

크리핑 인플레이션 (creeping inflation)

마일드 인플레이션(mild inflation)이라고도 하며,
매년 수%의 느린 속도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특히 1950년대의 미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갤로핑 인플레이션 (galloping inflation)

물가상승률이 연간 10% 내외에서부터 심한 경우 수십 %까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며, 전시 중 또는 전쟁 직후에 물가가 마치
말이 뛰듯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초인플레이션 (hyper inflation)

물가가 극단적인 속도로 상승하는 현상(1개월에 50% 초과)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초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 영향

긍정적 영향

- 적절한 정도의 물가 상승은 소비가 자극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 창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됩니다.
- 인플레이션은 경제 뿐만 아니라 투자자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상승 속도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가 적절히 상승하면 토지가치가 높아지고 생산설비의 평가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화폐기준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영향

부정적 영향

-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려주는게 어려워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득 격차가 심해져 사회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 상품 값이 비싸지면 더 비싼 값으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국내 물건 값이 비싸지면
수입물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저축을 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축하는 일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지장이 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대응방법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를 내리려 하고,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돈을 줄이거나
상품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대표적인 물가정책 수단으로 총수요와 총공급을 알맞도록
조정하는 총수요억제정책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방법

디플레이션을 유도하는 디플레이션 정책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정책이란 통화량을 줄이고 수요를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축소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
오히려 큰 경제 악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3 : 다음 문장이 맞으면 T, 틀리면 F를 괄호 안에 쓰세요.

답 3 : 인플레이션은 긍정적 영향은 없는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경제 현상이다. ()
(T : True, 참, F : False, 거짓)

질문 4 ~ 5 : 다음 문장 괄호에 맞는 단어를 써보세요.

답 4 : 통화량의 ()로 화폐가치가 ()하여 상품의 물가가 계속적으로
()는 경제 현상
(통화량 :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화폐가치 : 돈의 가치, 상품의 물가 : 물건 값, 물가)

답 5 :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 것만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 것이며,
돈의 구매력이 () 것입니다.